

서 평

Jean Duvignaud, *Fêtes et Civilisations*, 1991(1973), Actes Sud, Arles¹⁾

류 정 아

유학생 시절 뜻밖의 시간여유가 생겼을 때, 서점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전공서적들의 책장을 이리저리 넘겨보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말성이다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보고는 아쉬운 마음으로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아놓고 서점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면, 좀 더 후미지고 작은 골목길 구석에 밝혀있는 헌책방으로 찾아가 책방 안쪽에 즐비하게 놓인 책상자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책들을 뒤적이면서 혹시나 오늘은 '황제'나 하나 하지 않을까(왜냐하면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므로) 하는 기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 드비뇨의 『축제와 문명』이 유학초기 어느 봄날 소르본느 광장 근처 한 헌책방에서 바로 내가 한 황제였다.

『축제와 문명』에서 장 드비뇨는 죽음과 삶 그리고 현대인이 잃어가고 있는 꿈 사이에서의 대화를 축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대단히 압축되어 있으면서 난해하지만 신선한 감각으로 썩여진 이 책은 격동의 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읽는 이로 하여금 축제 상황에 빠져들게 한다.

장 드비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축제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 사회는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표상과 기호 그리고 규칙들의 파괴와 폐기를 경험하게 되며, 혼미와 희열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축제의 흥분 속에서 신과 인간이 결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행복을 저버리고 기쁨의 기억을 무시하고 있는 한, '축제'는 단지 우울한 기념제가 될 뿐이다. 사실 이렇게 축제가 소멸되기 쉬운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에 분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다소 늦게나마 축제의찰라적인 특징이 상상력의 환상을 자극하며, 영혼을 흔들고 일상적인 삶의 무기력에서 우리를 일깨우는 씨를

1) 장 드비뇨(1921-)는 파리 7대학에서 사회학, 인류학 교수 그리고 Maison des Cultures du Monde의 회장을 거쳐서 현재는 저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Chebika, La sociologie du théâtre et Le langage perdu, L'Or de la république, L'Empire du milieu, Dis l'empereur, qu'as-tu fait de l'oiseau?, Le don du rien: essai d'anthropologie de la fête, Le jeu du jeu* 등이 있다.

뿌리째 하는 것이라면, 축제에 관심을 들 이유는 충분하다.

『축제와 문명』은 일반적으로 인류학에서 잊혀진 몇몇의 이단적이거나 아노미적인 표현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고찰과 이것에서 ‘삶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로 쓰여진 책이다. 특히 단절성이 나타나는 축제의 순간에는 인간에게 잠깐이나마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장 드비노로 하여금 긴 축제의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일상생활’의 습관과 규칙을 지키는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래서 축제는 때로는 무례하고 신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치밀하고 예민한 상상적 창조의 순간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내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도 한다. 또한 변장을 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익살스런 흉내라는 다양한 변형들 속에서 축제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축제가 기존의 문화요소들에 이의를 제기하게 하고, 또는 그것들을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분에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들이 우리의 행동, 기술, 상징, 신화적인 것 그리고 동시에 철학적인 것들의 기본토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이스, 이집트에서 나타나는 도시형태와 봉건주의, 자본주의, 국가형성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영역’의 개념 등 그는 여기서 현세와 유토피아를 넘나들며 실로 광대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 부분의 후반부에서는 뒤르켐이나 까이와(Caillois), 바타이유(Bataille), 휘이징하(Huizinga) 등이 말하는 종교, 축제, 놀이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그는 ‘놀이’와 ‘축제’를 구분하면서, 놀이가 규칙의 수용과 과격한 근유행위에 기호를 부여하고 자연에서부터 이 행위를 분리시켜서 하나의 스펙타클로 만드는 것이라면, 축제는 규칙의 위반을 넘어서서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탈문화된 세계 즉, 규범이 없는 공포의 공간을 생성시키는 세계와 대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축제는 문명들이 변화에 의해 영향받는 그 순간에 그 문명들간의 틈새에 살며시 끼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는 평상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켰던 표상이나 상징들은 개인들에게 더이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즉 축제에서는 모든 용인된 기호들이 변조되고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쾌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쾌락 안에서 혼미스러우면서도 즐겁게 신과 인간, 또는 신과 자아 사이의 짝지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례들로는 ‘북동 브라질에서의 바닷가에서의 춤’, ‘세네갈의 죽음의 춤’, ‘페루에서의 폐쇄적인 축제’ 등을 들고 있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축제를 일종의 “상징적 환각”의 상태라고 규정한다. 특히 그는 의례나 축제에서 보이는 마스크의 인물들은 사물이나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기회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설정되어 있는 질서내에서는 인정하려하지 않는 잠재적이고 가능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에 해당하는 사례들로서 ‘1790년 7월 14일의 마스크 축제’와 ‘1937년의 나치의 썬-장(Saint-Jean) 축제’, 그리고 ‘1948

년 경의 동유럽의 사회주의의 5월' 등을 꼽는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축제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 대혁명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축제적 상황으로 분석한다. 그는 또한 개인들의 정신적 심리적 삶이 붕괴되던 말든 영속적인 산업축제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도시 내에서 인간들은 기거하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르네상스의 건축가들의 꿈이 콘크리트와 철의 꿈으로 대체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브라질의 Candomblé 축제'와 '마그레브의 사막에서의 결혼식', '1968년 5월 파리에서의 말(parole)과 사랑의 축제', '1964년의 네팔 카투만두에서의 알몸의 여자아이', '1967년의 파리의 팔라리움(Palladium)버스에서의 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정이 넘치는 육체들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네번째 부분은 축제와 전도성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고, 다섯번째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축제를 현재적 시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유토피아와 축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축제는 자연의 소명을 발견함으로써 힘을 얻고 이 힘이 바로 각각의 문화로 한계지어진 여러 지역들을 한꺼번에 포용하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문화도 이 파괴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파괴도 문화와의 관계없이 정의되지 않는다. 즉 축제는 존재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파괴해버려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부단하게 상기시키는데, 이것은 그가 인용하고 있는 코란의 한 구절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신은 인간이 숲처럼 타버리게 될 때 인간을 구제할 것이다."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드비뇨는 "희망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이때까지 한번도 실현되지 않은 구상이었던 '종말이 없는 역사'를 쓰려고 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의 폭발적인 사회상황의 인식에 열중했던 그는 걸치레를 넘어서 생동하는 경험과 '여행'을 통해서 지적 양분을 흡수하였다. 그는 때로는 역설적이면서도 활동적인 철학자이며, 서구의 가장자리에서 캠프를 치고 빈정거리기 좋아하던 '장난꾸러기'이기도 하였다. 그는 여행과 독서, 축제, 경계선에 있던 경험들, 모든 종류의 어지러움증들을 주위 모으면서 자유롭게 이 마법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것을 이론과 문학으로 변형시켰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일종의 포스트모던적인 향수인가? 아니면 몽상가의 웃음인가? 아니면 김빠지고 고리타분한 분개인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전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케 하기 위한 것인가?

그는 영웅적 행위에서보다는 "진보의 격동" 속에서 가능성의 지평선으로 열려있는 사고를 유지하면서, 치명적인 무게로 짓누르는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미와 영혼의 축제라는 꿈 위에서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적 정취가 없어져버린 종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문명을 고통받게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불티 또는 개척되지 않은 길이 남아 있기는 한 것

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풍부함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서 숫자의 독재자와 생산의 숭배가 정착했고, 상품의 무게, 가격, 통계, 발명품, 이윤, 봉급, 속도, 킬로미터, 보험 등 양적인 것이 인간육구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고, 이것이 행위의 동인이 되고, 의무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시들어버린 윤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버렸고, 개인적인 행복에의 갈망은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생산이라는 무거운 짐에 의해서 질식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편안함을 획득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 즉 “무용한 것”(실질적인 사용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경의를 상실했다. 무용함이란 즉 기쁨(plaisir)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이 무용한 것의 무한정한 가치가 나오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장 드비뇨는 “잠재적인 것이 실제적이거나 활동적인 것만큼이나 강하게 사회적인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축제를 통해서 상기시킨다. 오늘날 우리들의 첫번째 의무는 요컨대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동정을 살피며 기다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다음번의 ‘연락역’을 놓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잠재적인 것과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밀려들기를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절대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없는 세계에 익숙해지도록 하게 해야한다.” 그는 이러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젊은이의 기백으로 스스로에게 끝없이 희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장 드비뇨는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축제들을 전형적인 인류학적 시각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축제는 단지 하나의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축제는, 겉으로는 열려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욱 더 폐쇄되어가고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직시하게 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삶을 위한 하나의 출구로서 작용하며, 인간에게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것이다. 즉 인간들이 여전히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점이 자칫 냉소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장 드비뇨의 “축제여행”에서의 삶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류정아, 세종대 강사
주소 : 종로구 부암동 210-5
Tel : 379-6489(H)